

벤투호 평가전 대비 첫 소집훈련



벤투 감독

손흥민 출전할지 관심 벤투 "가능성 열려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이 6월 A매치를 위해 3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됐다. 대표팀은 7일 호주(부산)에 이어 11일 이란(서울)과 평가전을 갖는다.

이날 대표팀에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25명 중 손흥민(토트넘), 이강인(베르더 베르겐)을 제외한 23명이 소집돼 훈련에 나섰다. 소속팀 일정으로 합류가 늦어진 손흥민과 이승우는 4일 저녁 파주NFC에 입소해 5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전 관심사 중 하나는 손흥민의 출전 여부다. 그는 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출전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큰 경기를 뒀 직후의 대표팀 합류이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단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소집된 모든 선수가 금요일(7일)과 다음주 화요일(11일)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어떤 것이 우리 팀에 가장 좋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활용 가치가 정말 높다. 포워드, 처진 스트라이커, 측면공격수 등 모두 가능하다. 선수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포메이션과 전략은 차차 결정하겠다"고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번 소집에는 과거 '슈틸리케의 황태자'로 불린 이정협(부산 아이파크)이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해 관심을 받았다. 올 시즌은 K리그2 11경기에서 7골을 기록 중인 그는 2017년 12월 동아시아컵 이후 처음으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만에 파주NFC를 찾은 이정협은 "오랜만이라 낯설고 처음 왔을 때 보다 더 긴장된다"며 미소를 지었다. 또한 "빨리 팀에 녹아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최전방 공격수로서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들과 경합하면서 동료들과 연계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정지욱 기자

U-20월드컵 | 한국, 내일 0시 30분 일본과 16강전

테크니션 이강인 일본에 기술 건다



슈팅·드리블·패스 기량 돋보여  
아르헨 깡패도 공격 침범 역할  
오세훈·조영욱과 호흡도 척척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8강 진출을 놓고 일본을 만난다.

한국은 5일 오전 0시30분(한국시간) 폴란드의 루블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을 펼친다.

한국은 '죽음의 조'라 평가 받았던 F조에서 2승1패(승점4)를 기록하면서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우승 후보로 손꼽힌 포르투갈, 아르헨티나의 틸바구니에서 1차 목표였던 16강에 올랐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경험이자 자부심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16강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며 일정을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점점 좋아졌다. 특히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정정용 감독은 이강인(18·발렌시아)을 전진 배치해 큰 효과를 봤다. 이강인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오세훈(20·아산 무궁화)의 바로 뒤에서 공격 침범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강인은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 측면 할 것 없이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팀 공격을 주도했다. 전반 42분 오세훈의 헤딩골을 도운 측면에서의 완발 크로스는 이강인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강인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도 주목하는 유망주다. U-20월드컵에서 그의 슈팅능력, 드리블, 패스 등은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FIFA에서 눈여겨 볼 선수 10명을 소개하며 이강인을 뒀던 거론한 것이 아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팀 동료들 뿐 아니라 언론, 팬들까지 일본전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플레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오세훈, 조영욱(20·FC서울)과의 연계 플레이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 한일전에서는 더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을 상대하는 일본도 이강인의 존재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2일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주장이자 주축 미드필더인 사이토 미츠키(20·쇼난 벨마레)는 이강인에 대해 "엄청난 선수라는 걸 느꼈다. 기술 뿐 아니라 파워, 스피드 등 다양한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전원이 열심히 수비하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강한 팀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특출한 스타플레이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팀이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가 좋다. 실제로 조별리그 3경기에서 1실점 밖에 하지 않았다. 공격수 타가와 교스케(20·FC도쿄), 사이토 코키(18·요코하마)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수비에 더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U-20대표팀 간 전적에서 일본에 28승9무6패로 크게 앞서 있다. U-20월드컵에서는 16년 만의 만남이다. 2003년 아랍에미리트 대회 16강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에 1-2로 패한 바 있다. '테크니션' 이강인을 앞세운 한국은 이번 승리를 통해 8강 진출과 동시에 13년 전 패배의 아수마까지 털어버린다는 각오다.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막내' 이강인은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공격전에 활약을 보여준다. 그는 5일(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일본의 조직적인 수비진에 맞설 침범이다. 사진 제공 | 대한축구협회

제91회 동아수영대회 5일 개막

국내 최고선수 총출동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제91회 동아수영대회가 5일부터 9일까지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7월 12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프레대회를 겸해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세계수영선수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대회에 많은 관람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19년 6월 5 ~ 9일
- 종목: 경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 장소: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
- 부문: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주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대한수영연맹  
후원: 광주광역시 협찬: KYOBO 호텔

누나들도 동생들처럼 여자월드컵 16강 Go!

8일 우승후보 프랑스와 개막전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대회 장소인 프랑스에 입성했다. 여자대표팀은 지난달 21일(한국시간) 스웨덴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는 등 답습을 해왔다. 3일 프랑스 수도 파리에 도착한 여자대표팀은 숙소에서 짐을 풀고 목표표로 삼은 '두 대회 연속 16강'을 이루기 위한 막바지 훈련에 돌입했다. 여자대표팀은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와 함께 A조에 속해있다. 8일 오전 4시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인다. 이 경기는 대회 공식 개막전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대표팀에게는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에서 비행기로 3시간 여 떨어진 폴란드에서는 FIFA 20세 이하(U-20)월드컵이 진행 중이다. 한국 U-20대표팀은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아 보란 듯이 16강에 진출했다. 여자대표팀은 폴란드에서 U-20대표팀의 좋은 기운이 프랑스까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지욱 기자

본선 목표 1승...남자농구대표팀의 무한도전에 박수를

8월 열리는 남자농구월드컵 세계 10위 내 국가들과 경쟁

최용석의 팀인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남자 월드컵이 8월 31일 중국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는 개최국 중국을 비롯해 각 대륙 예선을 통과한 31팀 등 총 32개국이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한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에서 F조 2위를 차지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2014년 대회 이후 2연속 본선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매 4년마다 열리는 농구 최고의 무대지만 국내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 남자농구대표팀이 3일 소집돼 인천선수촌에서 훈련에 돌입했지만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는 시선은 많지 않다. 한국 남자농구의 국제대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탓도 있고, 농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

한국은 본선에 올랐던 최근 두 대회 1998년, 2014년 월드컵에서 모두 5전 전패를 당하며 조기 귀국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대회는 1994년 캐나다대회로 한국은



한국남자농구대표팀이 3일부터 인천선수촌에서 소집 훈련에 돌입했다. 한국은 오는 8월 31일 중국에서 열리는 농구월드컵에 출전한다. 사진은 지난 2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월드컵 아시아예선을 앞둔 한국 선수단의 모습. 사진 제공 | 대한농구협회

8경기에서 3승5패를 기록했다. 조별리그(라운드)에서 3연패로 조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후 순위결정전 진출을 위한 라운드에 승리를 거뒀다. 순위 결정전에서 2승을 챙겨 1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번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목표는 역시나 1승이다. 한국은 러시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만만치 않은 상대와 조별리그를 치른다. FIBA 랭킹으로 보면 러시아는 10위, 아르헨티나는 5위로 세계 10위권 이내의 팀

들이다. 한국이 32위로 나이지리아(33위)보다는 랭킹이 앞선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지역예선 2라운드에서 조 1위로 본선행을 이뤄낸 팀이다. 유럽프로리그와 미국 프로농구(NBA)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합류하면 전력은 지역예선 당시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신체조건과 운동능력 등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종목의 특성상 태극전사들에게는 '무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자칫 큰 점수차 패배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상식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일념으로 월드컵 본선을 향한 준비에 들어갔다. KBL 리그를 마친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몸을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개인훈련을 하며 대표팀 소집에 대비해왔다. 무한도전에 나서는 선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박수가 필요하다.

스포츠부 차장 gtyong@donga.com